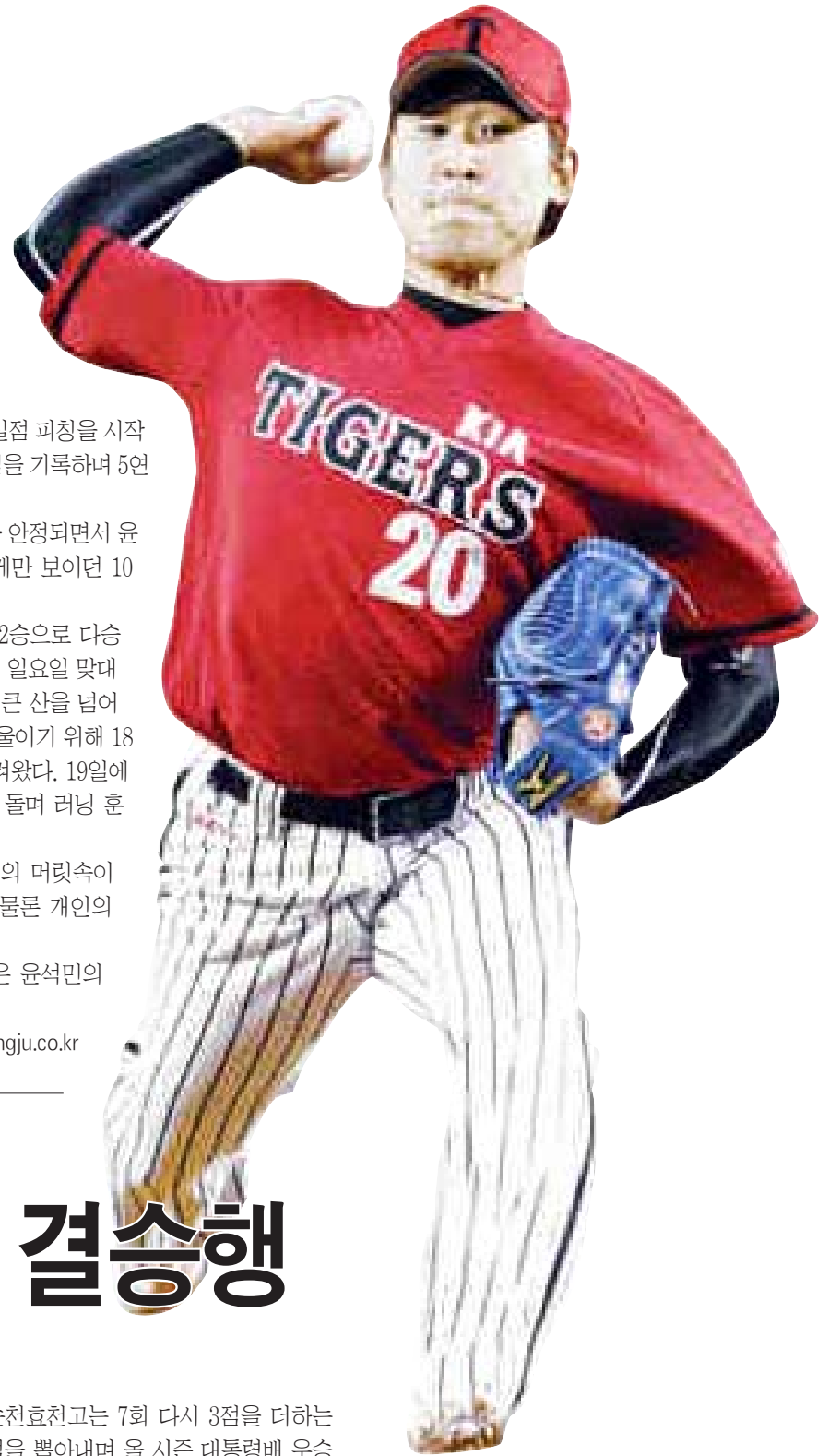


# KIA 윤석민 “3연승 더” 건들지마!



선발→마무리→선발... 초반 ‘위기의 팀’ 구하며 연승가도  
 남은경기 5~6번 등판 가능... KS 직행·10승 달성 전력

“내 자리를 찾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10승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다. 윤석민은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3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1실점의 투구로 시즌 7승을 거뒀다. 지난 7월19일 한화전을 시작으로 5연승.  
 올 시즌 남은 경기에서 5~6번 정도 등판이 가능한 윤석민은 7승3패, 3.01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2.33의 기록으로 ‘방어율왕’에 등극했던 지난해의 성적(14승5패)과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보여줬던 윤석민의 투구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성적이다.  
 윤석민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WBC 베네수엘라와의 준결승에서 깜짝 피칭을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만큼 올 시즌 윤석민을 보는 팬들의 기대는 컸다.  
 그러나 4월4일 두산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5이닝 6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

던 윤석민은 개막 후 4경기에서 승없이 2패만 기록했다. 승운도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 등판이었던 4월1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9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이고도 팀이 1-2로 패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출발이 좋지 않았던 윤석민은 에이스라는 책임감도 떠안아야 했다. 한기주의 부진과 부상속에 윤석민은 마무리로의 역할을 자처했다. 선발에서 마무리로 자리를 옮긴 윤석민은 7세이브를 거두며 위기의 팀을 구해냈다.  
 5월29일 LG전에서 선발로 복귀한 윤석민은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시즌 첫 선발승이자 시즌 2승을 기록했다. 이후 세 차례의 등판에서 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두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끊으며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유측어깨 통증으로 2주 가량 재활군에 머물러야했던 윤석민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으면서 심각한 고생도 했다.  
 잊달은 약재를 이겨낸 윤석민은 뒤늦게 10승 고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

다. 윤석민은 7월19일 한화전 8이닝 무실점 피칭을 시작으로 최근 5경기에서 1.8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5연승을 달리고 있다.  
 시즌 초반 문제가 됐던 투구 밸런스가 안정되면서 윤석민의 승수쌓기에 속도가 붙었다. 멀게만 보이던 10승 고지에 대한 욕심도 부쩍 커졌다.  
 고비는 주말 SK와의 경기다. 시즌 12승으로 다승 공동 1위, 방어율 2위(3.02) 송은범과의 일요일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다. 10승 고지를 향한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윤석민은 SK전에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18일 5이닝 만을 소화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19일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무등경기장을 돌며 러닝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석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승이라는 팀의 목표는 물론 개인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국민 투수 윤석민’을 향한 욕심 많은 윤석민의 반전극이 야구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순천 효천고 미추홀기 결승행

덕수고 꺾고 오늘 인천 제물포고와 격돌

순천효천고가 화랑기 우승컵을 놓고 인천 제물포고와 격돌한다.  
 순천효천고는 19일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미추홀기전국고교야구대회 덕수고와의 준결승에서 12-5로 이겨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덕수고가 1회부터 3점을 뽑았다. 덕수고의 선두타자 나경민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도루로 2루를 밟았다. 이후 1루수의 실책에

이러 불넷이 나오면서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은 순천효천고는 1회에만 2개의 실책을 범하며 3점을 내줬다.  
 1회말 연속 불넷에 이은 희생번트로 1점을 쫓아간 순천 효천고는 2회말 세타자가 연속해서 불넷으로 걸어가는 등 안타 하나 없이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4번 주도성의 3타점 2루타가 터지면서 점수는 6-3이 됐다. 상대 마운드의 난조 속에 손쉽게 승기를

잡은 순천효천고는 7회 다시 3점을 더하는 등 12점을 뽑아내며 올 시즌 대통령배 우승 팀 덕수고를 꺾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선발 이태양은 7이닝 동안 6피안타 5실점(3자책)으로 승을 챙겼고, 8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국내야구 최장신(207cm) 최완장민익은 삼자범퇴로 2이닝을 막으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순천효천고는 20일 오후 1시 제물포고와 미추홀기 마지막 대결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또 멀티히트

3경기 연속 안타 행진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안타를 치며 3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추신수는 19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타율은 0.291에서 0.293으로 약간 올라갔다.

0-3으로 뒤진 2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로스앤젤레스 선발투수 트레버 벨의 시속 135km짜리 체인지업을 받아쳐 2루수 앞 내야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벨의 폭투로 2루까지 진루한 뒤 루이스 발부에나의 2루수 앞 땅볼 때 홈을 밟아 팀의 첫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2-5로 뒤진 3회 1사 1.2루에서는 벨의 빠른 몸쪽 공(시속 151km)을 잡아 당겨 우익수 앞 안타를 치면서 만루를 만들었다.

이어 조니 페타타의 우전 적시타가 터지면서 클리블랜드는 1점을 추가했다.

추신수는 5회에는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아웃됐지만 7회에는 1사 2,3루에서 불넷을 골라 나갔다.

추신수가 9회말 2사 1루 마지막 타석에서 친 공이 2루수에게 라인 드라이브로 잡히면서 클리블랜드는 4-5로 졌다. /연합뉴스

## 양용은 우승, 세계스포츠사 세번째 큰 이변

美 폭스스포츠 보도

17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 챔피언십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물리친 양용은(37·태일라메이드)의 ‘깜짝 우승’이 역대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세 번째로 큰 이변이었다고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폭스스포츠가 19일 보도했다.  
 폭스스포츠는 “우즈는 메이저대회 54회

까지 선두를 달렸던 14차례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우즈가 더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했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양용은의 우승을 지금까지 개인 종목에서 일어난 세 번째로 큰 이변으로 꼽았다.

지금까지 스포츠 개인 종목 역사상 가장 큰 이변으로는 199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마이크 타이슨과 제임스 더글러스의 헤비급 타이틀 매치에서 더글러스가 10회 KO승을 거둔 것이 선정됐다. 2위에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120kg급 결승에서 당시 최강이던 알렉산더 카벨린(러시아)를 물리친 톨론 가드너(미국)가 이름을 올렸다.

결국 양용은의 우승은 골프 종목에서는 역대로 가장 큰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400m 허들에서 에드윈 모제스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낸 앤드리 필립스(이상 미국)가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위성미 “양용은 훌륭한 선수... 퍼팅 한수 배웠다”

재미교포 골프 선수인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양용은(37·태일라메이드)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GA 챔피언십 우승에 함께 기뻐했다.

21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일리노이주 슈거그로브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의

여자프로대회전인 솔하임컵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위성미는 19일 대회 공식 인터뷰에서 양용은의 우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일이다. 일본에서 함께 연습 라운드도 한 적이 있어 양용은이 매우 훌륭한 선수라

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리노타호 오픈에서도 만나 친한 사이라 열심히 응원했다”고 소개한 위성미는 “매우 좋은 분이고 훌륭한 선수다. 전에 나에게 퍼트에 관한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솔하임컵에 출전소감에 대해 위성미는 “훌륭한 선수들이 이룬 팀에 속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는 코스의 특성보다 매치플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위성미 “미국대표 됐어요”  
 앞두고 연습라운드에서 샷을 하고 있다.

위성미가 미국 일리노이주 슈거그로브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의 여자프로대회전인 솔하임컵을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길 돕습니다. 2. 건강을 지켜줍니다. 3.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국제보청기**  
 www.kitr.com

본점 (063)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충청점 (061) 262-9200  
 총점 (062) 227-9970  
 목산점 (063) 851-2422